

1할의 새싹심기... 불교미래 어둡다

포교원 설문조사, 전국 1717사찰 중 어린이법회 운영 180곳...本寺는 절반만

법회시간 일요일 오전이 가장 많아...교구 교재 개발·동영상 자료 절실

●어린이법회 운영 실태

조계종 사찰 10곳 중 1곳만 정기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교구본사 절반이 어린이법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수척사 교구에서는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한 곳도 없었다. 어린이법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20~30명이 참석하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이 2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조계종 사찰 171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 중단 차원에서 최초로 직접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조계종 사찰 1717곳 중 180곳(10.48%)에서만 정기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 중 약 50% 정도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어린이회 카페를 개설·운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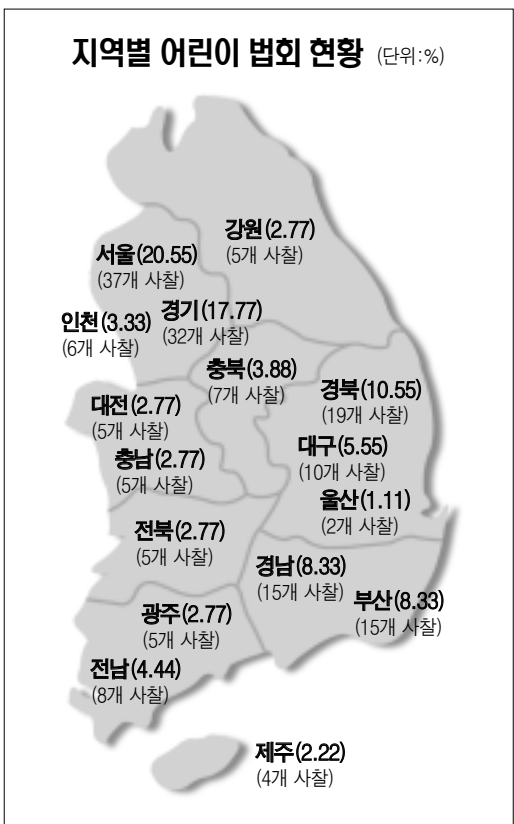
어린이법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찰 145%는 산중, 섬 지역 등 환경적 조건으로 인한 참여 어린이수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209%는 정기적인 어린이법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여름·겨울캠프(불교학교), 한문학당, 영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0.87%는 지도자 문제, 재정적 문제 등이 해결되면 다시 어린이법회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5개 교구본사 중 절반가량인 13

개 본사에서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교구별로 보면 직할교구가 48곳(26.66%)으로 가장 많았고, 군종특별교구 17곳(9.44%), 통도사 14곳(7.77%), 용주사 12곳(6.66%), 송광사 10곳(5.55%) 순이었다. 이에 비해 수척사는 한 곳도 없었으며, 월정사·화엄사·선운사는 1곳, 신홍사·급산사·백암사·관음사는 2곳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7곳(20.55%), 경기 32곳(17.77%), 인천 6곳(3.33%) 등 어린이법회 41.65%(75곳)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어린이법회 때 20~30명이 참석한다고 대답한 사찰이 54곳(30%)으로 가장 많았다. 10~20명도 34곳(18.88%), 10명 미만도 8곳(4.44%)이나 되는 등 소규모로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100명 이상도 8곳(4.44%) 있었다.

지역별 어린이 법회 현황 (단위: %)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대부분의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은 직장인, 특히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교사다. 평균 2~3명의 교사, 보조교사들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사찰의 80%정도에 자원봉사자들이 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몇몇 지도자들은 10~30만원 정도의 보시금 또는 차비를, 대학생들은 학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법회는 주로 일요일 오전에 한다. 어린이법회는 교사회의를 통한 월간계획에 따라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고학년

수준별 반별수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거의 모든 사찰이 수련회 및 불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법회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평균 2~3배 정도 많다.

어린이법회를 지원하는 동문회나 자모회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찰은 거의 없다.

●무엇이 필요한가?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은 어린이 포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손꼽았다. 어린이 지도를 위한 공통 교육계획안과 같은 교수자료가 필요하며, 다양한 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어린이법회 지도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해주는 지도자 지침서와 체계화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책자도 필요하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불교성경 및 불교를 접목시킨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해야 하고,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 아이들의 수준별로 쉽게 설명된 찬불가 반주용 악보도 필요하다.

토요 학습 체험 교실을 실시하는 등 아이들이 찾아오는 사찰 만들기 등 지원해야 한다. 대학생 지도교사, 자원봉사자 수급을 위해 구인사이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돼야 한다.

지도자 보수교육을 통해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지도자들간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돼야 하며, 연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선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관음사 산중총회 중지결정

중앙선관위,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4월 10일 열린 제175차 회의에서 "제174차 회의에서 4월 7일까지 중단 기간지연 불교신문에 수정공고를 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관음사 교구가

이를 미시행했다"며 선거금지 및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관음사 교구는 주지 후보자가 "제23교구(관음사 교구) 산중총회 구성원이야 한다"고 불교신문에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음사 교구를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관음종 서울불교문화대학 10년만에 재개원

승가·불교학과 118명 입학...박성배 교수 초청 특강도

1997년 묘각사 화재로 문을 닫았던 관음종 종합대학인 서울불교문화대학이 10년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관음종(총무원장 흥파)은 4월 6일 서울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승가학과 학인 스님 60명, 불교학과 학생 58명 등 총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불교문화대학 입학 및 개교 법회를 봉행했다.

서울불교문화대학 승가학과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 교육(2년제)이며, 불교학과는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1년간 교육한다.

서울불교문화대학 학장인 흥파 스님은 입학식에서 "2007년을 관음종 교육원년으로 정하고 서울불교문화대학의 교육발사에 모든 원



4월 16일 10년만에 재개원한 서울불교문화대학 승가학과 입학식.

력을 다하겠다"며 "짧은 기간 모집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입학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은 우리 종단의 구성원들이 배우겠다는 발원을 크게 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불교문화대학은 4월 14

일 박성배(뉴욕주립대 한국학) 교수를 초빙해 '몸과 몸짓의 논리(體와 用의 論理)'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서울불교문화대학은 앞으로도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수강할 수 있는 특강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현직 국무총리 첫 조계종 공식 방문

한덕수 총리 지관 스님 예방 신임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한덕수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인사차 4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현직 총리가 종단을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국무총리에 취임한 것을 축하한

다"며 "북한 핵문제, 한·미 FTA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오랜 공직 경력으로 보아 잘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하며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 축소 모형을 선물했다. 남동우 기자

청암사 비구니 올원 18일 개원법회

김천 청암사주지 상택가 4월 18일 오전 11시 자양전에서 비구니 올원 개원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올원장 연구와 출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될 청암사비구니 올원은 180여 평 규모로 지난해 건립됐다. 2년 과정의 청암사 올원은 <사분술>, <선원정규>, <법망경>, <사미니율> 등 올원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청암사 올원에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스님에 한해 면접과 필기시험을 거쳐 입장이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학년별 5~7명이다. 김원우 기자

위원 위촉·사무실 개소 한국전통사상 서간행위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지관·총무원장) 사무실이 4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문을 열었다. 간행위는 이를 계기로 간화선으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불교 정수가 담긴 전통사상서를 영역해 세계에 알리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간행위원장 지관 스님은 이날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 간행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간행위원회는 사상서 번역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한국불교에 이바지하고 본인 연구에도 도움이 되도록 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무량종 창종 8주년

철보정사에서 기념법회

무량종(총무원장 해안)은 4월 8일 총본산 하동 철보정사에서 창종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창종법회에서 무량종 총무원장 해안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멸 만능으로 정신문화가 타락한 현대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교화에 앞장



서는 종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보정사는 지역노인 500여명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열었다. 김원우 기자

『고담녹월』에서 禪의 진미를 만끽하세요!

“선지식의 최상승 법문이 컷전을 스쳐 지나가도 다검생의 업장이 녹고 성불의 인연을 심게 돼”



선종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당법어 총 81칙!

- 경허-해월-운봉-함곡 선사로 내려오는 부처님의 혜명을 79대째 면면히 잇고 계신 진제 대선사의 새 법어집
- 동화사와 해운정사, 조계종 기본선원의 조실로 계시면서 결계·해제 법회에서 설하신 상당법어 총 81칙으로 구성
-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베풀어 놓은 가장 고준한 공안 법문을 엄선하여 큰스님의 정안(正眼)으로 일일이 점검하신 사자후
- 선(禪)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바른 침선법과 바른 깨달음의 표준을 제시한 침선 수행의 지침서
- 경허 선사 이래로 법을 전하는 친법 전법계와 태고 보우 국사로부터 이어진 법맥을 스승이 직접 써서 내려준 등등상축(법맥도) 사진 수록

최고봉에 올라서야 모든 산봉우리가 다 내려다보인다. 고담녹월은, 마조 선사의 '인면월(人面月) 面佛(面佛)' 공부를 타파함으로써 선(禪)의 경界的 경지를 깨달아 함곡 선사로부터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선법을 부촉받은 진제 선사께서 천후만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 내놓은 법어집의 완결판이다. 선종 사상 유례가 없는 상당법어 총 81칙으로 구성된 이러한 역작을 당대에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은 등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너무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확률적이라는 개념의 경계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선 법문을 통해 선(禪)의 진미(眞味)를 맛보게 된다. 이 법어집을 늘 가까이 두고 보시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참선 수행을 무언해 연마하여 모든 분들이 "관나"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 전국 서점에는 '옛 문에서 법을 전한다' 라는 한글 제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신국판 / 황금색 비단양장 / 485면 / 값 20,000원**

구입문의 : 전국 불교서점 및 대형서점, 해운정사

바른 참선법을 지도한 진제대선사 영상 법문!

제1회 : 불교TV 초청대법회-해운정사 (불기 2550년 11월 12일) 해월 선사·진제 선사의 오도와 전법 부처님의 최고의 관문	제2회 : 불교TV 무상사 초청대법회 (불기 2550년 11월 19일) 운봉 선사의 오도와 전법 향상의 일구·활구와 사구
제3회 : 불교TV 무상사 초청대법회 (불기 2550년 11월 26일) 함곡 선사의 오도와 전법 운바른 참선법	제4회 : 범술년 동안거 동화사 결계법회 (불기 2550년 12월 5일) 경허 선사의 오도와 선법 선양 중국의 명안종사를 참방하여 점검함

 [비디오 테이프] 장가 : 날개 15,000원 (4개 세트 : 50,000원)	 [DVD] 4장 세트 장가 : 40,000원	 [카세트 테이프] 4개 세트 장가 : 12,000원	 상할선사재 진제선사의 거랑 [VHS / DVD / 카세트테이프]
---	---------------------------------	-------------------------------------	--

구입문의 : 해운정사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0 Tel: 051.748.2258 / 4812 www.seon.or.kr)